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문화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화학은 문화의 구조와 변화, 문화의 전파와 수용, 문화의 기능과 가치 등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문화학은 문화를 철학적, 사회학적, 문학적, 예술학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는 학문으로, 문화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유익한 도구입니다.

한국문화재단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전시·행사·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문화재와 예술, 과학,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와 예술, 과학, 청소년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서 “암마 그동안 내가 사준 아이스크림이랑 쪼꼬렛이 얼만데 쌩까나!” 고 외치고 싶었지만, 나는 종현이보다 스물다섯 살이나 많은 어른이니까 참았다.

종현이에게는 형아와 누나와 엄마가 있지만  
아빠는 없는 것 같다. 가게에서 골목길을 지켜본  
시간 동안 종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지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그녀는 하루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이면 항상 종현이와 함께 마트로 향한다.  
피곤해 보이지만, 아들을 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낮에는 시크하게 굴던 종현이도,  
엄마 앞에서는 개구쟁이다. 엄마 손을 꼭 잡고,  
빙글빙글 돌며 골목길을 걸어간다. 종현의 엄마와  
꾸벅 눈인사를 하면, 종현이도 그제서야 나에게  
인사를 해준다. 여전히 몸은 엄마에게 대롱대롱  
매달려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한다. 나보다 몇 살 많아 보이지도 않는  
저 여자는 얼마나 강하길래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피곤한 얼굴을 하고도  
아이를 볼 땐 웃을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그녀가  
안쓰럽다는 마음까지 들 때면, 오지랖을 너무 부린  
것 같아 부끄러워 이내 생각을 거둔다.

가게 옆 세탁소 주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다. 처음엔 당연히  
부부라고 생각했지만, 동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그냥 데리고 살아주는 거였다.  
깡마른 몸에 똑 떨어지는 단발머리를 한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동네를  
뺑글뺑글 돈다. 어디 급히 갈 데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냥 그런척 하면서 걷는  
것 같다. 급하게 걷는 모습이 가끔은 뜻 마려운  
강아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겨울에 반팔을 입거나  
여름에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나 사람들의 이목을

풀칠면 1



가게 밖의 사람들

호연지

금강을 헤쳐나가면서, 그의 글은 점점 더 넓어져갔다.  
그는 그동안 배운 바를 활용해 글쓰기에서  
자연스럽게 문장의 흐름과 구조를 조율하는  
기술을 익혔다.

한국의 문화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예술, 철학, 청중,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특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예술과 현대 예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창작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예술 형식을 기반으로 하되, 현대적인 주제와 기법을 적용해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예술 분야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 문화가 전통과 현대, 전통과 혁신을 결합하는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풀칠면 1

발행일 2025년 12월 17일

글쓰이 호연지



자으배가 지해하느

<의상묘사 : 숨풀 학평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댓글로 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글은 [jagunbae.com](http://jagunbae.com)에서 확인하세요.